윤장현 광주시장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전방위 행보

김무성 새누리 대표 만나 '제3지대 기아차 공장' 건의
광주공장 생산 전기차 쏘울EV로 관용차 교체하고
수소차 기술 개발·산업 지원 등 현대차그룹 구애도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조성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받은 뒤 함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채 새누리당 광산갑 당협 위원장, 윤장현 광주시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윤세 새누리당 광주시당위원장. 〈광주시청 제공〉

민선 6기 광주시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을 목표로 정·재계를 넘나드는 등 전방위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원장, 이정현 최고위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새누리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는가 하면 100만대 생산기지의 핵심 키를 쥔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한 구애작전도 이어가고 있다.

윤 시장은 지난 10일 김윤세 새누리당 광주시당 위원장 등과 함께 김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3지대를 통한 새로운 기아차 공장 건립'을 건의했다.

윤 시장은 "현재 기아차 근로자들의 연 평균 임금인 8500만원 수준의 절반인 4000만원대 연봉을 받는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시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새누리당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과 완성차 업계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

그는 "광주는 전국 최고의 노동생산성과 함께 성장 잠재력이 큰 SUV와 전기자동차 생산 중심지로 동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서해안 자동차산업벨트의 허브"라며 "노·사·민·정의 협력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대타협 환경을 조성중이며,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계획도 마련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미국이나 멕시코, 중국, 슬로바키아 등은 평균 임금이 6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파업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지적한 나를 고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윤 시장이 근로자의 연봉을 내려서 제3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고 노조가 동의한다면 이는 획기적인 일이다"며 "사회적 합의로 추진한다는 데 크게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자동차산업 육성이라는 광주시의 전략은 시대적으로 맞다"고 전제하고 당 뿐 아니라 정부를 총동원해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광주는 과거 부모가 경영했던 방직공장도 있었다"며 "노사가 합의해서 100만대 생산시설을 지을 수 있다면 엄청난 일이다. 여야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방문은 김윤세 새누리당 위원장의 주선으로 이뤄졌으며, 김용채 광주 광산구갑 당협위원장, 윤풍식 광주시당 수석부위원장 등 새누리당 광주시당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윤 시장은 정치권과는 별개로 현대차그룹의 마음을 얻는데도 연일 공을 들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시장의 '1호 관용차'를 현재 오피러스 대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자동차 쏘울EV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시민시장의 이미지에 맞춰 소형차를 타겠다는 의미가 크겠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기아차의 멕시코 공장 신설 과정에서 불거진 쏘올라인 해외이전 등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행보로도 분석된다.

윤 시장은 앞서 지난 8일에는 현대차그룹이 막대한 자본을 들여 집중 육성중이지만, 판매처 등이 없어 고전하고 있는 친환경 수소차인 현대차 투싼ix의 시승식과 함께 수소차 분야 기술개발, 충전소 운영, 수소차 보급 등 수소차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인색

7월 8.4%…2012년부터 한자릿수
부산 27.3%·대구 15.2% 대조적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이 12일 정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하거나 입주할 12개 공공기관(일부 공공기관 자료 미제출로 제외)은 지난 2012년 전체 신규채용 인력 583명 중 27명(4.6%)을 지역인재로 뽑았으며 2013년엔 670명 중 42명(6.3%)을 지역인재로 각각 채용했다.

또 올 7월말 현재는 571명 중 48명(8.4%)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등 10% 미만의 채용률을 보였다.

반면, 부산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은 2012년 10.2%→2013년 16.1%→2014년 7월말 27.3%, 대구혁신도시 입주기관은 7.2%→14.1%→15.2%의 지역인재 채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75개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은 2012년 2.8%, 2013년 5%, 2014년 7월말 기준으로 6.8%였다.

김윤덕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역대학과 MOU체결, 지역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채용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며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위한 법적 조치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도 영남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이 12일 공개한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평균 분양률은 25%다.

이 가운데 부산 혁신도시는 분양률이 100%로, 분양이 완료됐고, 대구 혁신도시의 분양률이 38.6%로 뒤를 이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클러스터 분양률은 33.3%로 3번째를 차지했다.

빛가람혁신도시 클러스터는 전체 면적 46만3000㎡, 분양 면적 15만4000㎡로 지난 8월 현재 분양기업은 총 6곳(민간 5, 공공기관 1)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7곳 혁신도시 분양률은 울산 31.9%, 충북 17.4%, 제주 12.1%, 전북 11.0%, 경남 8.3%, 경북 7.9%, 강원 7.8% 등이다.

특히 클러스터 용지 분양 계약을 체결한 민간기업은 총 66곳으로, 이중 55곳이 대구 혁신도시에 집중돼 심한 불균형을 보였다.

추 의원은 "클러스터 용지분양률을 끌어 올리려면 분양가 인하 외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산학연 클러스터를 지식산업의 중심이 되는 첨단산단으로 키워내고 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도록 산업부와 교육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 全無

市, 광주영어방송 등 13곳 내달까지 재진단 후 조직 혁신키로

광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중 2014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말까지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경영평가를 진행해 결과가 낮은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는 인사상 책임을 묻는 등 조직 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8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 위탁·의뢰한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13곳) 2014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인 S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광주영어방송 등 6곳이 A등급을, 5.18기념재단 등 7곳이 B등급을 받았다. 또한 신규로 평가받은 곳을 제외한 9곳 중 8곳이 2년 전 평가보다 점수가 하락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2012년과 2013년 경영 실적 등을 토대로 기관장의 리더쉽과 전략(10점), 경영시스템(20점), 경영성과(70점) 등을 서면과 현장방문, 인터뷰 등을 거쳐 분석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 D등급부터 90점 이상 S등급까지 10점 단위로 5단계로 평가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광주영어방송이 총점 87.4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계도시환경포럼이 77.90점으로 가장 낮았다.

A등급은 광주여성재단, 광주정보산업진흥원, 빛고을노인복지재단, 광주디자인센터,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등이었다.

B등급은 5·18 기념재단, 광주문화재단, 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기후변화대응센터, 세계도시환경포럼 등이었다. 특히 광주문화재단은 2년 전 평가와 비교해 무려 10.49점이나 하락했다.

5·18기념재단 역시 2012년 평가보다 8.29점이 떨어져 A등급에서 B등급으로 추락했으며,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도 7.81점이 떨어져 B등급으로 내려갔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유일하게 0.44점 상승했다.

광주여성재단, 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기후변화대응센터, 세계도시환경포럼 등 4곳은 올해 신규평가 대상 기관이다.

한편, 광주시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말까지 자체적인 경영진단을 통해 조직혁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